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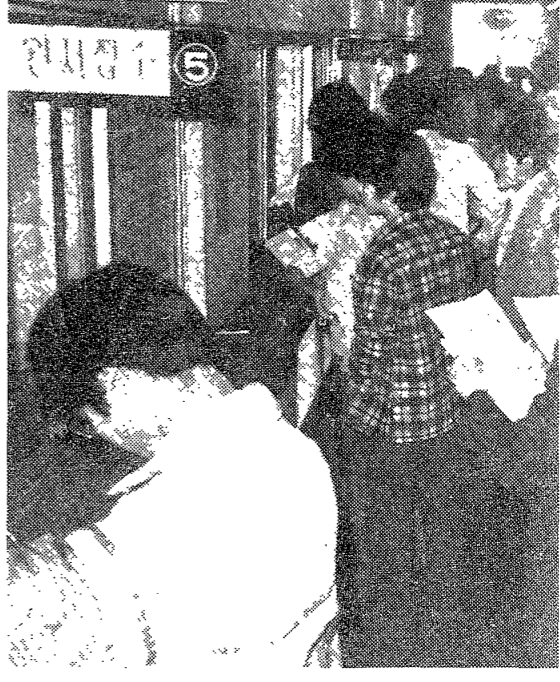








# □失業의 현장을 가다... '옛날생각하다가'는 굶어죽기 십상이죠,



「求職難」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 구직자들이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求職難」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 구직자들이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구직자들은 '옛날생각하다가'는 굶어죽기 십상이죠, 라는 말을 듣고 있다. 구직자들은 '옛날생각하다가'는 굶어죽기 십상이죠, 라는 말을 듣고 있다. 구직자들은 '옛날생각하다가'는 굶어죽기 십상이죠, 라는 말을 듣고 있다.

# 총어는 전쟁... 하늘의 별따기

총어는 전쟁... 하늘의 별따기. 구직자들은 '옛날생각하다가'는 굶어죽기 십상이죠, 라는 말을 듣고 있다. 구직자들은 '옛날생각하다가'는 굶어죽기 십상이죠, 라는 말을 듣고 있다. 구직자들은 '옛날생각하다가'는 굶어죽기 십상이죠, 라는 말을 듣고 있다.

구직자들은 '옛날생각하다가'는 굶어죽기 십상이죠, 라는 말을 듣고 있다. 구직자들은 '옛날생각하다가'는 굶어죽기 십상이죠, 라는 말을 듣고 있다. 구직자들은 '옛날생각하다가'는 굶어죽기 십상이죠, 라는 말을 듣고 있다.

회사측 '여자는 영구직 부적당' 地方大는 大企業에 명함도 못내밀어. 구직자들은 '옛날생각하다가'는 굶어죽기 십상이죠, 라는 말을 듣고 있다. 구직자들은 '옛날생각하다가'는 굶어죽기 십상이죠, 라는 말을 듣고 있다. 구직자들은 '옛날생각하다가'는 굶어죽기 십상이죠, 라는 말을 듣고 있다.

地方大는 大企業에 명함도 못내밀어. 구직자들은 '옛날생각하다가'는 굶어죽기 십상이죠, 라는 말을 듣고 있다. 구직자들은 '옛날생각하다가'는 굶어죽기 십상이죠, 라는 말을 듣고 있다. 구직자들은 '옛날생각하다가'는 굶어죽기 십상이죠, 라는 말을 듣고 있다.

地方大는 大企業에 명함도 못내밀어. 구직자들은 '옛날생각하다가'는 굶어죽기 십상이죠, 라는 말을 듣고 있다. 구직자들은 '옛날생각하다가'는 굶어죽기 십상이죠, 라는 말을 듣고 있다. 구직자들은 '옛날생각하다가'는 굶어죽기 십상이죠, 라는 말을 듣고 있다.

「求職難」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 구직자들이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구직자들은 '옛날생각하다가'는 굶어죽기 십상이죠, 라는 말을 듣고 있다. 구직자들은 '옛날생각하다가'는 굶어죽기 십상이죠, 라는 말을 듣고 있다. 구직자들은 '옛날생각하다가'는 굶어죽기 십상이죠, 라는 말을 듣고 있다.

「求職難」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 구직자들이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구직자들은 '옛날생각하다가'는 굶어죽기 십상이죠, 라는 말을 듣고 있다. 구직자들은 '옛날생각하다가'는 굶어죽기 십상이죠, 라는 말을 듣고 있다. 구직자들은 '옛날생각하다가'는 굶어죽기 십상이죠, 라는 말을 듣고 있다.

**大學生을 위한 특강!!**

TOEFL (이재욱)	TOEFL (아카데믹)	VOCA 2000	방통대학영어	영어실력기초	생활영어	日本話독본
이덕형	이정신	여신	임섭	김영섭	김상원	김자연

국내 최고권위의 교수진 특별초빙!!  
개강: 12월 3일 ( )  
※ 방학특강 개강: 12월 18일 (月)

기독교방송 문화센터 245-4575-8 763-4827-8

**TOEFL** 新개정판

TOEFL·入社試験·考試·大学院을 위한 최고의 수험 대비서!

4·내배관 957면 2,000원 전권 서점에서 발매중!

(주)시사영어사 문의전화 (275) 5258 (274) 0509

영어는 바르고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한번 익힌 언어는 교정이 매우 쉽습니다.

**영어회화의 명문 SDA**

세계적인 영어회화 전문교육기관 SDA는 일본·대만·홍콩·태국·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 각국이 지재 학원으로 운영되는 영어회화의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강사진원 미국인으로 완전미국식 학습분위기 미국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교사들이 최신교수법으로 강의, 본국인 특수교재를 사용하며 어학실습실을 완비한 동양 최대의 영어회화 전문 교육기관.

실용적이며 실제적인 생활영어 회화를 교육 입문, 기초, 초급, 중급, 고급, 최고급, 특별반등 7단계 완성, 매 단계는 2개월간으로 1,3,5,7,9,11월초에 개강.

15일 07시부터 선착순 접수 마감  
청량리, 영동,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1월 6일 동시개강

**삼육영어학원** SDA ENGLISH LANGUAGE INSTITUTES

청량리: 244-1275, 7521 | 영동: 543-2270, 8162 | 부산: 44-3536, 3537 | 대구: 954-6915 | 광주: 33-8903, 8904 | 대전: 253-6494 | 복구대원: 227-22 | 문충동: 120 | 영구대원: 23-2

**The Korea Herald** 어학연수원

— 大學生 겨울방학특강 —

개강: 1차 - 1985년 12월 16일  
2차 - 1986년 1월 8일

**시청각 규 영어회화 과정**

교육과정: 1일 2시간 주 5일(일~금) 수업 기초부터 최고급까지 6개수준, 각 8주과정  
강사진: 美國 Princeton 大學 출신 등 학·석사로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 과정을 이수한 유자격 미국인  
반편성: 개인별 테스트후 수준이 비슷한 수강생들로 한반 12명 이내로 반편성  
특징: 전 교실에서 첨단 시청각교육시설 및 국내 최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비한 정통 시청각정규 영어회화 과정

**미국인강사 TOEFL**

교육과정: 1일 90분 주 5일(일~금) 수업 초·중·고급의 3단계, 각 4주과정  
강사: 한국어에 능통한 미국인강사 직강  
반배정: 모의 TOEFL에 의해 단계별 반배정  
교육료: 3단계(고급) 수료후 500~550점 이상 취득 목표  
특징: TOEFL을 완전분석 종합한 특수교재  
특징: 미국인강사로 L.C는 물론 회화실력도 향상

퇴계로 2가 지하철명동역앞 코리야헤럴드本社 3층 756-7711 (交) 463-5

# 수필

## 설악은 뒷걸음... 가을 산에도 취하는가 어지러운 기쁨이 가슴으로 젖어든다

11월2일 토요일 하늘빛이 청명한 아침이었다. 설악산에 청봉에 찾은 내린림을 기운은 어찌보다 북 뿔어져내렸으나 문화담사를 가기에 는 더할 나위없이 상쾌한 날씨였다. 해마다 연례행사로서 어저는 국어교육과의 문화담사. 이번엔 1박2일의 일정으로 강릉쪽으로 발길을 잡았다. 예정보다 좀 늦은10시에 배중나온 이들의 손길을 뒤로하고 버스는 코끼리산양을 출발하였다.

한동안 설악도로 슬렁거리는 버스 안에서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며 창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버스는 웅인내 언덕에서 출발하였다. 멀리 보이는 웅인내 평원지대가 고이 잠들어 개신 일주 등 선성봉에 합장으로 잠시 명봉을 밟아보았다.

달리는 고속도로 옆 빈들에는 가을햇빛이 넘쳐나게 쏟아져 내리고 동산의 흰 대밭들이 암자의 손길만남처럼 흔들거리고 있었다.

버스는 여수와 이천을 지나 원주 치악산의 선명함산맥을 보고 있었다. 소사 휴게소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둔내내림을 지나 가산이

효석 문화비를 찾았다. 해발 890m, 웅만한 산봉우리와 구름조차도 내려다 볼볼 다란 곳에 가산의 문화비가 의외로 서 있었다. 비문을 읽으며 이제 그는 허공을 지나가는 구름, 또는 옷깃을 스쳐가는 바람이 되었을지 하고 잠시 생각해 보았다. 기념사진을 찍고 다시 버스에 올랐다. 노란 옥수수과 꽃감을 감을 잔뜩 매어달은 농가가 창 밖을 스쳐가고 대산의 다섯 봉우리가 우리의 시야에 잠시 머물렀다가 뒤로 물러갔다.

대관령 휴게소에서 간단히 점심식사를 끝내고 멀리 강릉시와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며 구불구불한 고갯길을 내려오다보니 현란한 단풍과 사이어비트 하늘이 눈시울아 들라움으로 다가왔다.

푸른 남대천 물줄기를 옆에 끼고 집집마다 홍보성의 푸른 비단에 뜬이처럼 박힌듯한 갈나무의 귀엽고 실한 열매를 바라보며 강릉시가로 들어갔다.

갈대기 우거진 경포대 푸른 호수를 돌아 오죽현에도 도착하니 오후 3시17분이다.우선 물극 선성의 영정을 모신 문선사(文成阿)에서 분향하고 사랑채만 남아있는

구옥(舊屋)을 돌아보았다. 이 구옥의 주연골씨는 추사 김정희의 필적을 판각해 놓은 것인데 필체의 흘림이 심해 알아보기가 어려

카롭고 선명하며 기가 센 듯한 느낌을 주었다. 물극과 사임당의 묘가 시대의 본산이 있는 경기도 파주의 자운산에 자리하고 있다는 말을 선

### 동행기 기사서



▲효석문화비문의 국교과 담사반.

배를 끌고 들어가 그곳을 돌아 나왔다. 오죽현 정문 앞에 서니 앞으로는 대관령의 그늘 한 골짜기, 뒤로는 푸른 노송이 어우러져 있어 기이한 인물이 태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장소 같았다. 버스에 올라 숙박 예정지인 낙산 수련장으로 달렸다. 그곳에 도착하고 보니 길지 않은 초겨울 해가 송림사이로 황금빛 옷자락을 추스리며 막 넘어가고 있었다. 밝은 달빛으로 몸을 적시며 부서져 깨지는 파도소리와 온 밤을 나누고 이튿날 새벽엔 의상대로 해맞이를 하려갔다. 날구름도 없는 잠미빛 수평선 위로 층층이 주름, 노랑, 연두, 보랏빛으로 물든 하늘, 불 밝힌 고깃배가 하나 둘 사라지고 점점 파배지는 하늘 위로 기러기 몇마리가 열을 지어 날아가자 푸른 물위로 아주 낱알만 해가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아쉬운 시간들이 청어빛 바닷바람에 실려 마구 지나가고 있었다. 아침식사를 마친 후엔 새파란 바다물결에 탁한 눈빛을 씻어내지도 못한채도 다시 출발해야만 하였다.

백발의 대정봉을 바라보며 조를 달릴 양양을 지나 한계령으로 접어들었다. 코발트 하늘 아래 깎듯 뾰족바위가 틈새로 고야한 푸른 소나무를 거느리고 신선처럼 서 있었다. 오색 약수터와 잠수대, 그리고 햇빛도 가로막는 하늘벽을 지나 원통마을로 들어서니 설악은 이제 뒷걸음이다. 가을산에도 취하는가, 어지러운 기쁨이 가슴으로 젖어든다.

## 영웅과 스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웅의 개념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지고있는것 같다. 전에는 민중과 더불어 호흡하고 애환을 함께 나눌수있었던 정인, 투철한 애국관음지닌 군인, 송고한 삼의 철학을 품은 실천한종교가 교육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이렇듯나운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 영웅시 되고

李 喆 鎬  
<수필가·62년국문과 후>도의 관심을 갖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이 사소한 것들이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는 데 있다. 대학생은 대학생 다와야 한다. 정치인이 정치인답고 교육자가 교육자답아야 하며 종교인이 종교인답아야 하듯이 대학생은 대학생다운 품위를 지녀야 한다. 지나친 특권의식이나 우월감에 빠져서도 안되겠지만, 웅비(雄飛)의 기상을 지닌 지성인답게 대학생은 보라 큰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국민을 기쁘게 해 주는 인기 연예인이나 조국영예를 빛내주는 운동선수들이 결코 훌륭하지 않다는

## 東岳路

있기때문이다. 심지어는 나이 어린 국민 학생들에게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으면, 잘 알려진 프로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 혹은 T.V에 자주 등장하는 인기 가수·탤런트 등의 이름을 대기 일쑤다. 만화를 좋아하는 어린이들 중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블 그린 만화가나 만화속의 주인공을 이 세상에서 가장

## 雄飛의 기상 가진 지성인다운 지성인이 요청되는 시대인데...

존경하는 인물로 손꼽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향은, 투철한 사명감과 목표의식을 갖고진리를 탐구해야 할 대학생들에게서도 더러 나타난다. 간혹 버스타나 지하철, 또는 다방이나 술집 같은 데에서 일필일필 뜯는 대학생들의 대화 내용에 실망을 금치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가슴에 자랑스런(?) 대학팻지를 버젓이 단 대학생들이 최근에 유행하는 옷의 스타일이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연예인들의 스타일이라든지 프로선수들의 연봉 문제 등에 특정을 두루어 열을 올리고 있는 걸 보면 웅비(雄飛)의 기상을 가진 대학생들이라곤해서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지 말란 법은 없으며, 어느정

## 시집

### 아가다 크리스티 작 <취뿔> 공연

## 현실에 뿌리내린 詩人의 悲哀 응징 "승화된 언어로 현실 초극했으면"

尹錫浩의 제2詩集『山門』을 호르는 鍾士烈이 乙亥 출판공사에 의해 출간되었다. 1979년 『열린 아침』을 상한후 6년간의 시집이다.

自序가 있고 序言의 해설을 덧붙여 제1부 다리와 별, 제2부 안방의 기도 제3부 풀잎의 노래 등 3부로 나누어 실었는데 저자는 『안방의 기도』는 영혼의 소리

스며/라웠던 울음을 토해 낸다/ 풀잎들 無限天空을 肉身이 날고 있었다

가보여 주듯 新顔 이렇지 未踏의 길은 앞으로 그에게 더 인간적인 그러면서 종교적인 곳으로 침잠케 하여 어떤 가능성을 표출하고 있다고 보겠다.

제2부의 안방의 기도 편에서는 모든 종교를 다 섭렵 하려하고 (종교적이라는 것이 어느 종교에 짐작하라는 것은 아닌성 실다) 자기 나름의 세계관을 형성해내려는 듯 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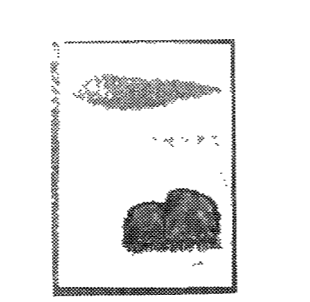
우리가 종교를 갖던 아니던 그것은 시인의 자유이긴 하지만 모든 종교를 (진리를) 융합하려는 의지와 패기는 가히 불만한다. 그러나 좀더 깊이있게 천착함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여기 시편들은 어떤 스케치마냥 보여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저성장에서 같은 작품은강한 현실의식을 나타내 문명에 대한 거역 자연과의 이법에 대한 거역, 생존에 대한 파괴적 실상의 거역등무섭게 나타난다.

尹錫浩의 詩들을 총괄評價 한다면 현실에 뿌리내린 한 시인의 비애와 같다.

땅에 발을 딛고 영원을사려는 시인이 흰털 날아가버리고 싶은데 발이 땅에서떨어지지 않는 비극이 있는것



## 윤석호 著

갔다.

永遠의 求道, 現實의 압담. 尹錫浩는 갈등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詩人이 현실을 초월하려는 갈등 그것은 곧 尹錫浩의 강등감이 아니요 전체 인간의 갈등이다. 그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詩人이 더 승화된 言語로 더 높은 곳에서 응대되고 그것이 가슴안에서 응해되어 시인이 소위해 해해 현실은 사실 아무런 고뇌의 대상이 아닐수 있고 초월할 수 있지 않을까. 精進을 빌 뿐이다.

鄭 光 修  
<불교문화사 主幹·시인>

아가다 크리스티의 원작 <취뿔>이 오는 6일부터 극단 [제3부대]에 의해 무대에 올러진다.

아가다 크리스티가 만세기 이상 절친 작가생활을 통해 남긴 작품 속에서 가장 성공을 거둔 작품으로 평가되는 <취뿔>은 서기 1952년 영국 런던에서 첫공연을 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아가다 크리스티의 작품 형식은 기발한 착상, 독창적인 표현, 구성의 치밀성, 단정한 문체도 고전의 자리를 확립하고 있으며 그 특징은 극히 평범하면서도 패색된 상황을 설정하여 몸의 재치를 미리 노출시켜 지의 재감을 만끽케 하고있다. 그리고 모든 결말은 예상외로 뒤엎고 마술사와 같은 수법으로 해결, 하나의

반에서 한 여인의 피살사건이 발생한다. 수사대로 의부와 단결된 한 여인에게 범수준, 정신병자, 전직판사, 형사, 참녀, 여인숙 주인부부 등 손님들 사이에 제2의 살인이 발생한다. 이같은 연쇄적인 살인사건과 손님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상상 추리극으로 처리한 작품이다. <英>

## 우리말 풀이

▲웅신하다 : ①웅송하게 있다. ②뾰죽이 팔지 않고 은은하다. ▲불가알 : 아주 심한 가름 ▲복물지다 : 복날에 또는 복날을 전후하여 비가 많이 오다. ▲친친하다 : 속속한 중에도 끈끈한 느낌이 있다. ▲첫물지다 : 그해들어 첫 홍수가 나다. ▲개부심 : 장마에 큰물이 난 뒤 한동안 쉬었다가 한바탕 내리붓는 비가 명개를 부어어 낸다. ▲뱃밀 : 오던 비가 그쳐어 멀어지는 속도. ▲웃비 : 아직 빗가운이 그치지 않았으나 작작 내리다가 그

▲자오목하다 : 바람없이자목하다 (자보목하다). 짜보목하다. 자우목하다. ▲강시바람 : 초가을에 부는 동풍 ▲찬바람머리 : 가을철에 싸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때. ▲득하다 :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다. ▲성명장 : 풀위에 떠서 흘러가는 얼음덩이. ▲어늬다 : 일다가 늬다가 하다. ▲얼마르다 : 얼어가면서 차차 마르다. ▲갈마바람 : 서남풍. ▲난바다 : 육지를 멀리 떠나 자유로운 바다. <문화부>

## 東國漫評

후임자는 누구?

## 書評

라 했고『풀잎의 노래』는 자연과의 만남이라고 했으며 1부의『다리와 별』은 현실속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모습의 片鱗이라했다. 그의 詩篇들을 읽어보면생각을(感惟)물고 나가는 방향이 하나의 구도인 자제인것만은 틀림없다.

『겨울 비인 산에 올라』같은 詩를 보면 산에 오르다/달없는 겨울 비인 산을 오르다/수천 갈래의 길이 있지만/정상은 하나 뿐이다.(中略), 겨울산에 올라/달없는 나무들의 말을 배운다/매서운 바람 핏속에

첨단기술이 재현하는 원음의 세계 - 롯데파이오니아의 소리!

# 知性, 原音, 感動!

날카로운 지성은 음의 세계를... 연주자의 숨소리까지 느끼는... 첨단기술이 재현하는... 지성과 롯데파이오니아의 만능 범용 感動의 세계가 열린다. 앵콜 앵콜

롯데 콤포넌트 시스템 컴퓨터 오디오 Avante G-9R

롯데 카세트 롯데 카세트 LPC-2000w

롯데 뮤직 센터 롯데 파이오니아 LM-200W



